인문연구 제91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1, No. 6, pp.167~190
http://dx.doi.org/10.21211/JHUM.91.6

로보-사피엔스의 젠더화된 몸 비판

- 지넷 윈터슨의 『석상』을 중심으로*

강영아**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여성의 젠더가 각인된 몸: 고정된 몸
3. 로보-사피엔스의 젠더화된 몸 해체하기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의 『석상』(*The Stone Gods*)은 기술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기술이 가부장적 사회의 손에 들어간다면 여성과 여성의 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텍스트이다. 윈터슨은 유전공학적으로 개선된 여성의 고정되는 몸과 로보-사피엔스의 교체되는 여성적인 몸의 구성성과 인위성을 전면화하여 기술사회가 여성의 해방을 비준하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2096)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시간강사

않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극단적으로 재현한다. 본 논문은 『석상』에서 맥머피 부인의 고정된 몸과 스파이크의 교체되는 여성적 몸에 집중하여 기술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방식을 살피고, 여성/여성 로봇의 연대가 남성 과학자들이 구축한 젠더화된 몸을 해체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체제가 부과하는 규범적인 몸에 대한 저항이며 비판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석상』이 기술사회에서 여성의 연대와 저항가능성을 보여주어 기술과 여성의 제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텍스트임을 조명한다.

주제어 : 지넷 윈터슨, 석상, 고정된 몸, 테크-바디, 젠더화된 몸, 로보-사피엔스

1. 들어가는 말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은 『석상』(The Stone Gods, 2007)[1]에서 여성과 "로보 사피엔스"(Robo-sapiens) 간의 이종적 관계를 통해 기술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성 문제를 조명한다. 이는 텍스트를 일명 윈터슨의 '최초의 과학소설(SF)'로 명명하도록 만들었지만, 정작 윈터슨은 『석상』이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인 환경과 문명의 위기를 다루기 위해 과학적 요소를 이용할 뿐 과학소설이 아니며 장르 구분이 의미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Winterson 50). 『석상』에 대한 비평적 동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디스토피아적인 인간문명의 종말이미지에서 "포스트

1) 본 논문에서는 킨들 이북(Kindle E-book) 판본을 인용하였기에, (n. pag.)를 포함하여 인용면수는 생략하기로 한다.

모던적 서사의 명백한 특징들"(Weiss 179)을 분석하거나, 탄소 생명체인 인간과 실리콘 생명체인 로봇간의 이종적 관계에 집중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과 로봇간의 로맨스의 가능성"(Antakyalıoğlu 977)을 혹은 "이분법적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유동적인 젠더"(Dolezal 96)를 조명했다.

윈터슨의 『석상』은 여성과 여성로봇의 연대를 통해 기술사회에서 여성이 몸을 인식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몸의 경계들이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여성주의 과학소설이라 할 수 있다. 패트리샤 멜저(Patricia Melzer)에 따르면 여류 작가들의 과학소설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시스템이 어떻게 여성을 착취하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적이다(Villegas-López 재인용 35). 윈터슨의 『석상』 역시 가부장적 사회가 기술을 독점한다면 기술이 역설적으로 여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무대화한다. 여성의 지속적인 몸 성형과 여성로봇의 성적인 몸은 기술사회에서 여성 억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테크놀리지와의 제휴가 젠더 이원론에 입각한 오랜 여성 억압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석상』은 이스터섬(Easter Island)을 황폐화시켰던 맹목적인 우상 숭배의 상징인 돌로 된 모아이(Moai)'[2]를 제목으로 차용하였다. 텍스트 속의 여성들 또한 젊은 몸을 갖기 위해 "유전자 전도술"(genetical reversal)에 집착하는데 이는 미용, 성형술에 의존하는 현대여성을 연상시킨다. 『석상』은 결코 미래의 상상의 서사가 아

2) '석상'은 제 2부의 배경인 이스터 섬(Easter Island: 원명 Rapanui)에서 맨 처음 발견된 돌로 만든 모아이(Moai)를 일컫는다.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은 신성시하는 조상의 얼굴 석상인 모아이를 세우기 위해 돌과 나무 같은 천연자원을 고갈시켜서 삶의 터전인 섬을 헐벗은 황무지로 만들고 결국 자멸에 이른다.

니듯이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기술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곤궁을 재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나이가 "고정된 몸"(fixed body)과 로보-사피엔스의 "교체 가능한"(exchangeable) 여성적인 몸은 첨단 기술사회에서도 여성의 착취와 대상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재현한다. 여성/로봇의 몸이 체현하는 인위성은 기술사회에도 여전히 몸이 이분법적 젠더논리에 입각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조명한다.

『석상』에서 여성/로봇의 고정되고 교체되는 몸은 여성과 기술,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마리 앤 발사모(Mary Anne Balsamo)의 '테크-바디'(tech-body)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다. 발사모는 테크-바디를 경유해 기술과 몸의 상관성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여성의 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적 응시들에 도사리고 있는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한다. 특히 발사모는 여성의 몸과 기술 간의 위계적 관계를 문제시하는데 이분법적 젠더개념이 기술을 배치하는데 결정적인 문화적 조건이면서 동시에 기술 배치의 사회적 산물임을 지적한다(23). 즉 테크-바디는 젠더가 위계적 관계를 구축하는 주된 장치임을 체현한다 할 수 있다. 발사모는 테크-바디를 "과학적 생체권력이 행사되는 장소"(17)로서 간주했는데 『석상』에서 여성/로봇의 젠더가 각인된 몸 역시 과학적 지식을 독점한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지배하는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석상』은 첨단기술이 남성중심의 사회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해방이 아닌 억압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본 논문은 윈터슨의 텍스트가 맥머피 부인(Mrs. McMurphy)의 고정된 몸과 로보-사피엔스인 스파이크(Spike)의 교체가능한 몸에 집중해서 기술 중심 사회에서 몸에 젠더가 각인되고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스파이크가 몸을 해체하는 것이

체제가 부과하는 규범적인 몸에 대한 도전이며, 젠더가 각인된 몸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석상』은 인간과 기계, 여성과 여성로봇의 연대에서 기술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여성의 저항가능성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텍스트임을 조명할 것이다.

2. 여성의 젠더가 각인된 몸: 고정된 몸

『석상』의 첫 장에서 주된 배경인 오버스 행성(Planet Orbus)의 센트럴 파워(Central Power)는 진입로에 세워진 황금 게이트가 상징하듯이 모든 것이 첨단화된 기술사회이다. 센트럴 파워는 선진문명을 내세우며 인접한 행성의 다른 국가들인 이스턴 칼리페이트(Eastern Caliphate)와 시노모스코 팩트(SinoMosco Pact)와 거리를 둔다. 익명의 기업가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지배하는 센트럴 파워는 과학기술이 창출하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회 모든 곳을 첨단기술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술 중심 사회인 "테크 시티"(Tech City)의 전형이다. 실제로 이곳의 시민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가 걸러지고 개선되거나 복제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나이'(age)는 '정보 오류'(information failure)로 취급되고 '노화'(ageing)라는 말은 '고문서'에서나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로봇들이 사회곳곳에 배치되어 치안을 전담하며 시민들의 노동을 대신한다. 특히 이 사회는 각종 로봇들이 가사노동을 대신하고, 모든 생식이 유전자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여성들의 자궁출산은 불필요하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재생산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센트럴 파워는 일견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헤게모니 구조가 사라진 기술사회의 이상향을 구현하는 듯하다. 하지만 센트럴 파워가 장악한 첨단기술에 의존하

는 이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시민들을 통제하는 주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도구"(Weiss 181)와 다를 바가 없다. "이곳에서 부자와 유명인사가 더 아름다워 질수 있다"는 여성 화자의 언급처럼 이 사회는 기술 자본력을 장악한 소수 지배층에게만 유토피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론트'(Front)라는 삼엄한 경계선으로 에워싸여 있는 센트럴 파워는 첨단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의 일거수가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이다. 사회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감시 카메라가 좋은 예인데, 거리에 비치된 주차미터기 마저 사람들의 신상을 스캔하고 규범 위반시 자동차를 통제하여 이동성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센터럴 파워 체제는 사회 규범들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의 선이라고 선전하지만 예술과 사랑의 부재가 암시하듯이 시민들의 개인적 생각과 표현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전체주의적 사회의 주요 특징으로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Horkheimer & Adorno)가 소비중심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현대사회를 정의한 용어인 "삶이 통제되는 세계"(Weiss 재인용 180)의 일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한편 센트럴 파워에서 진정한 이데올로기 장치는 문화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미디어 매체이다. 미디어 매체가 대중들에게 소비중심의 대중적 기호를 생산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의 명목아래 자원 고갈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행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대중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디어가 보여주는 유행에 집착하고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데 빠져있다. 이는 대중들이 "매체가 내보내는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들로 축소되었다"(Antakyalıoğlu 980)는 해석을 내놓게 한다. 하지만 지배체제가 미디어매체를 이용해 지식담론을 생산하고 증식시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의 기호언어는 "국가

가 용인한 대중의 문맹"[3]을 심화시키는 한편 유행을 선도하여 대중들의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미디어 매체는 시민들이 맹목적으로 기술에 의존하고 사회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주된 제도장치라는 점에서 진정한 이데올로기 장치라 할 수 있다.

센트럴 파워에서 미디어매체는 미의 기준을 생산하고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여성들 사이에 성형술이 만연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미의 기준이 타인은 물론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안드레아 드워킨(Adrea Dworkin)은 여성의 몸이 역사적으로 사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임을 '미의 기준'이 몸에 작용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 드워킨에 따르면 한 사회의 미의 기준은 여성의 태도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몸의 용도를 결정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할 수 있다. 즉 미의 기준이란 여성의 몸이 갖는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113-4). 『석상』에서 센트럴 파워의 대중들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방독면 착용이 일상적이지만 젊고 아름다운 몸을 갖기 위해 성형술과 유전자 수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유전자전도술이 남성과는 상이하게 적용되는 여성의 몸이야 말로 미의 기준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구속하는지를 노골적으로 재현한다 할 것이다.

미디어 매체가 남성성, 여성성을 어떻게 재현하는 가는 대중들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전 보르도(Susan Bordo)는 남성성

---

3) 센트럴 파워의 사람들의 문맹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스피치 테블릿(speech tablets)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이 단일문자를 인식(single-letter recognition)하는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미디어가 보여주는 유행에 민감한 대중들은 기호로 된 '광고' 언어에만 익숙해져서 점차 뇌가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 여성성에 대해 매체의 재현이 생산하는 동질화(homogenize)와 정상화(normalize)의 효과를 지적하였다(40). 매체가 생산하는 특정한 이미지들은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이성애자들로 가정하듯이 인종적, 민족적, 성적 차이 역시 억압하고 동일시한다. 이처럼 동질화된 이미지들은 결국 규범적인 정상성을 얻게 되는데, 대중들이 이 이미지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훈육하고 교정 받게 된다(Bordo 41). 『석상』에서 센트럴 파워의 여성들의 몸은 이러한 미디어 매체의 동질화하고 정상화하는 영향력을 구현한다 할 수 있다. 남성들 역시 성형수술과 유전자 전도술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센트럴 파워에서 "서른 살이 넘는 여자가 없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맥머피 부인의 사건은 기술 중심 사회에서 여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배체제의 기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1장에서 센트럴 파워 산하기관인 '개선센터'(Enhancement Services)에 소속된 화자 빌리는 상사 '맨프레드'(Manfred)의 지시로 맥머피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다. 맥머피 부인은 이미 58세에서 24세로 한차례 유전자 전도를 받은 바 있지만, 소아성애자인 남편이 빠져있는 수퍼스타 '시뇨리타'(Senorita)처럼 12세로 몸을 또다시 고정 받고자 한다. 맥머피 부인의 고정된 몸은 현대문화의 풍토 속에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극단적인 기술과 고통을 감내하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핑크'라는 닉네임이 암시하듯이 맥머피 부인의 몸은 "규범이 되어버린 여성성의 패러디"(Dolezal 99)로 보여준다 할 만하다. 맥머피 부인의 몸이야 말로 이 사회에서 여자가 50세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사실적으로 체현한다.

> 내가 수도 없이 말 했지만—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 받고 싶어요. 내가 24살을 넘길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나는 심지어 질을 축소시켰어요. 나는 병마개처럼 꽉 조여 있어요.
>
> 'I told you a hundred times — I love my husband and I want his attention. I'll never get it aged twenty-four. I even had my vagina reduced. I'm tight as a screwtop bottle.' (n. pag.)

한편 맥머피 부인은 12세로 몸 나이를 고정하는 것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여 여성의 신체적 결정권의 문제와 결부시킨다. 그녀가 가슴성형은 물론이고 질 수축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남편 맥머피씨(Mr. McMurphy) 못지않게 그녀 역시 24세의 몸을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맥머피 부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은 그녀의 불안의식이 가부장제의 위계질서에 깊이 함몰된 여성적 경험과 관련함을 표현한다. "만약 아무도 우리와 섹스 안하면 우린 어쩌죠?"처럼 맥머피 부인의 몸은 여성들의 현실 경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센트럴 파워의 여성들은 태어날 때 이미 유전자가 개선되었기에 "모두가 이미 좋아 보인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 성형술과 유전자 조작으로 몸 나이를 고정시키는 유전자 전도술이 만연하다. 몸 나이를 고정시키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은 자율적 선택이 아님을 암시한다. 오히려 생명의학과 미용산업이 결합이 도출한 남성중심의 육체적 규범들이 합법화되었음을 의미한다(Dolezal 104). 게다가 남성들이 사십대 초에서 후반에 몸을 고정시키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서른 살을 넘기지 않으며 대다수가 24살로 몸 고정을 받는다. 이러한 관행은 이 사회가 여성의 가치를 남성보다 스무 살이나 더 젊은 몸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젊어보여야 한다고 느끼고 남성들은 덜 그렇다"(women feel they have to look youthful,

men less so)는 화자의 언급은 이 사회에서 젊지 않는 여성은 성적 매력이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드러내고 있다.

센트럴 파워에서 "더 이상 자궁출산이 없다"는 것은 여성이 재생산의 몸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맥머피 부인의 사건은 생명기술이 여성을 출산과 노화에서 해방시키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맥머피 부인의 진술은 기술 중심주의에 회의적인 여성 과학자인 화자의 관점을 경유하여 여성들의 자발적 동의로 보이는 성형수술, 가슴이식술, 질축소술이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성애 남성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맥머피 부인은 여성의 가치가 남성의 욕망의 대상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여성을 욕망의 주체가 아닌 소비대상이 되는 경험을 나타내며 여성이 사회가 부과한 기준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편『석상』에서 맥머피 부인이 체현하는 '고정된 몸'은 유기체와 기술의 혼합물이며, 젠더 정체성이 각인된 몸이라는 점에서 '테크 바디'의 문학적 구현을 보여준다. 발사모는 '테크-바디'를 통해 당대 기술담론이 몸을 재구축하기 위해 이분법적인 젠더-정체성 논리를 토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조명한다. 발사모는 '젠더화된 몸의 기술들'(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이라는 용어를 통해 젠더가 기술과 몸의 관계에서 권력관계를 조직하고 배치하는 준거 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23-8).『석상』에서 여성들의 고정된 몸이야 말로 젠더가 각인된 몸이라는 점에서 젠더가 기술의 배치를 결정짓는 문화적 조건이자 그 배치가 만들어낸 구성물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센트럴 파워의 사회적 노동이 불필요해진 남성들에게 "성적 모험이 유일한 자기표현의 방식"이라는 사실은 여성 못지않게 남성들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물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체제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타자 지향적인 욕구를 부추기고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었다면, 남성들에게는 모든 욕망을 성에 집중시켜서 성애화하는 양상은 "인간성을 박탈하는 행위"(Onega 286)와 다르지 않다. 단단한 질과 큰 가슴을 여성성과 동일시하듯이 이상적인 남성성을 "거대한 성기"와 결부시키는 것은 이성애중심의 체제에서 남성들 역시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남자들 모두 성기가 거대하다. 여성들 모두 아래쪽은 조개마냥 단단하고 위쪽은 구명부대마냥 부풀어 있다. 턱은 사각이고 피부는 구릿빛이고, 근육은 탄력적으로 멋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
> "All men are hung like whales. All women are tight as clams below and inflated like lifebuoys above. Jaws are square, skin is tanned, muscles are toned, and no one gets turned on." (n. pag.)

맥머피 씨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불법이지만" 이웃국가에서 어린 여자애를 데려올 수가 있다. 체제가 시민들의 일거수를 감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여자애 거래를 묵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체제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지가 아닌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담론 증식을 통해서 남성들의 성적 일탈을 부추고 조장하는 방식으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대치가 줄곧 바뀌어 왔다면, 현대의 생명기술 발전은 유례없는 큰 변화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센트럴 파워의 주요 기업 'MORE'은 우연히 유전자 전도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MORE'라는 이름처럼 대중의 소비욕구를 부추겨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비윤리적인 기업의 탐욕"(Onega 287)을 엿볼 수 있다. 맥머피 부인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센트럴 파워의 대중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된다. 이는 신자유시장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만족이 계속 지연될 뿐 결코 완전한 충족이 없음을 보여준다(Dolezal 104). 과거 여성의 통제가 금기의 형식을 띠었다면 소비중심적인 현대문화에서 통제는 담론의 형식을 띠며 생산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즉, 센트럴 파워 체제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여성의 노화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혐오스러운 것으로 담론화하고 체제의 영속화에 필수적인 여성들의 기술 의존을 심화시킨다. 기술의존이야말로 체제가 여성들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는데 정당성을 준다 할 것이다.

한편 빌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맥머피 부인은 자신의 "신경쇠약"을 이유로 정식으로 인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다. 맥머피 부인의 체제에 대한 지나친 순응만큼이나 법적공방을 일으키는 집요함은 시사점이 있다. 실제로 맥머피 부인은 가부장적 체제가 생명기술을 이용해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폭로하기에 "사회적 실제와 구조를 의식하고 있는"(Dolezal 101)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맥머피 부인의 소송은 체제가 이상향으로 구축한 '여성적 몸'에 대한 여성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자 체제의 부조리를 강조한다. 즉, 맥머피 부인이 강조하는 고정된 몸은 체제가 자연적 노화와 자궁출산을 금지시켜서 여성의 몸에 대한 감시와 지배를 공고히 함을 시각화한다. 하지만 『석상』에서 기술적으로 구축된 몸을 통해 젠더화 된 몸의 인위성을 강조하고, 종국에는 젠더화 된 몸을 스스로 해체시켜버리는 로보-사피엔스야말로 기술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물이라 할 것이다.

3. 로보-사피엔스의 젠더화된 몸 해체하기

지금껏 윈터슨 문학은 양극의 젠더와 생물학적 섹스의 체계 속에서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재현하는 글쓰기로 레즈비어니즘의 주류화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석상』에서 인간 빌리와 여성로봇 스파이크의 관계 역시 이전 작품의 주된 주제였던 인간성의 근원이 되는 로맨스와 같은 감정들을 다루는 "이종 간의 레즈비언적 로맨스 서사(Weiss 182)로 해석되곤 한다. 하지만 윈터슨이 빌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스파이크의 관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빌리와 스파이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여성과 로보-사피엔스, 즉 여성과 기계, 인간과 비인간의 결속이기에 기술사회의 포스트휴먼 주체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게다가 결말에서 빌리와 머리만 남은 스파이크가 기술사회의 전형인 테크 시티를 피해서 선택하는 폐허 시티가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은 『석상』이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님을 시사한다.

육체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는 여성의 몸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각인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4] 『석상』에서 스파이크는 섹스와 젠더가 인간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적인 경험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스파이크는 여성의 몸이 결코 문화이전에 주어진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체현한다. 그런

4) 그로츠는 여성의 몸에 대한 분석과 사유에서 남녀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찾는다. 그로츠는 육체성을 여성의 보편성의 토대로 생각하고, 특히 성차화된 몸(sexed body)에서 여성들의 억압, 경험, 사회적 지위를 탐색하였다(32). 여성의 몸을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것으로 보는 시각 대신에 여성의 몸을 변화 가능한, 새로운 해석, 인식, 새로운 각인에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에서 마지막장에서 스파이크의 자발적인 몸 해체는 그로츠가 몸을 저항의 장소로 재 정의할 수 있게 하는 몸들의 '능동성'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보여준다. 그로츠는 『뫼비우스의 띠』에서 지식이나 의미화, 권력이 몸에 침투할 수도 횡단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몸 역시 특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실천들을 능동적으로 각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35-6).

『석상』의 마지막 장 「폐허 시티」(Wreck City)[5]에서 빌리와 머리만 남은 스파이크는 테크 시티에서 추방된 존재들의 장소인 폐허 시티로 들어간다. '노 존'(No Zone)으로 불리는 폐허 시티는 오버스행성의 3차 대전 핵폭발에서 살아남은 방사능 변이체, 장애인, 동성애자들의 공간으로 의료보험, 원조, 복지, 경찰조차 없는 무정부상태로서 여성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 도시이다. 스파이크는 남성 과학자들이 창조한 최초의 '로보-사피엔스'이자 여성로봇으로 통한다. 로보-사피엔스는 금속처럼 강한 폴리머에 인간의 의식을 결합해 창조한 "인공 생명체"(artificial creature)로서 센트럴 파워가 우주탐사를 위해 고안한 첨단기술의 최고 업적물이다. 라틴어로 '지혜로운'을 의미하는 '로보-사피엔스'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로봇을 지칭한다.[6] 더욱이 과학자들

---

5) 『석상』에서 센트럴 파워는 죽어가는 오버스 행성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푸른 행성(Planet Blue)에서 원거주자였던 공룡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계산 오류'로 거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게 된다. 마지막 장에 오버스 행성은 3차 대전 이후 테크 시티(Tech City)와 폐허 시티(Wreck City)로 양분화 되는데 테크 시티는 센트럴 파워 체제가 유지되는 도시이고, 폐허 시티는 테크 시티의 추방자들의 도시로서. 대항하는 반체제의 부상을 시사한다.

6) '로보-사피엔스'라는 용어는 페이스 달루이시오(Faith D'aluisio)와 피터 멘젤(Peter Menzel)이 공동저서인 『새로운 종의 진화, 로보사피엔스』(2000)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로보-사피엔스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을 갖춘 로봇이라는 점에서 진화론적으로 호모

이 로보-사피엔스를 "진화하도록 프로그램 했다"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의 출현 가능성을 예고한다. 스파이크는 섹스와 젠더가 무용지물인 일종의 사이보그이지만, 남성 과학자들에게는 완벽한 여성적 몸과 "실리콘으로 된 질"(silicon-lined vaginas)이 장착된 여성로봇으로 간주된다. 그런 점에서 스파이크가 빌리를 위해 배터리 소모가 극심한 자신의 몸을 없애버리고 머리만 남기는 것은 젠더화 된 몸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에서 화자 빌리는 센트럴 파워의 주요기관인 SS(Enforcement Services and Enhancement Services)에서 법 시행을 감독하는 여성 과학자이지만 체제의 감시를 피해 농장생활을 고집하고 유전자 전도를 회피한 것이 문제가 되어 '푸른 행성'을 정복하기 위한 우주탐사대로 보내진다. 빌리는 우주탐사선에서 스파이크를 처음 만나게 되고, 이후 둘은 로맨스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빌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파이크는 탐사대에서 "가장 진보한 일원"으로 티타늄 골격에 광섬유 신경회로망(an articulated titanium skeleton and a fibre-optic neural highway)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구조위에 "나긋나긋하고 유연한" (pliable and flexible) 피부에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absurdly beautiful) 여성의 몸이 특징적이다. 스파이크는 자신의 몸이 임무 수행중의 "남자애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밝히는데, 자신이 남성 과학자들에게 첨단지식을 제공하는 사이보그이자 "지난 3년 동안 실리콘으로 된 질을 3개를 교체해야만" 했던 성적 대상임을 폭로한다. 남성 과학자들이 인간의식을 장착한 로보-사피엔스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일종의 "이성애 행위에 대한 성애화의 버전"(Dolezal 99)에 상응

사피엔스인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을 함의한 로봇이다. (https://www.scienceall.com)

하는 것이다.

한편 스파이크의 여성적인 몸은 도래할 기술사회의 젠더가 각인된 여성의 몸을 체현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 과학자들이 그들의 이상향인 완벽한 이브를 모델로 구축한 것인 만큼 스파이크의 여성적인 몸은 필연적으로 지배체제가 주도하는 여성의 생식과 성적인 기능이 구축되는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선 남성 과학자들은 스파이크의 몸에 자궁이 아닌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한 실리콘으로 된 질을 장착했다. 사이보그 존재에 교체 가능한 인공질을 부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여성존재를 오로지 '성적인 몸'으로 규정하는 것이기에 센트럴 파워가 남성 중심의 문화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센트럴 파워에서 자궁출산이 없음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체제가 발전의 이름으로 여성의 출산력을 박탈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폭로한다. 윈터슨은 『석상』을 소개했던 「소설속의 과학」("science in fiction")에서 스파이크에게 투사된 이상향이 "소년들의 환상"(51)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한다. 빌리의 독백인 "기술사회에서 여성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기술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가부장적 사회가 기술을 독점한다는 것은 여성억압을 비판한다. 기술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윈터슨의 경고라 할 수 있다.

섹스와 젠더가 무의미한 로보-사피엔스의 여성적인 몸은 이분법적 젠더의 구성성을 체현한다. 게다가 교환가능한 실리콘 질은 남성 과학자들에 의해 인간 의식뿐만 아니라 젠더가 코드화되었기에 젠더의 구성적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 발사모는 젠더를 몸과 기술 간의 권력관계를 조직하는 장치라고 강조한다. 스파이크의 교체가능한 몸이야 말로 '젠더화 된 몸의 기술'(Balsamo 28)을 형상화한다 할 수 있다. 즉, 스파이크는 기술적 구성물로서 몸이 젠더화된 양상을 드러내기에 여성의 정체성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축되는 양상을 시각화한다. 더욱이 스파이크의 다수의 교체가능

한 질은 고정된 여성의 몸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체계를 지지하는 제도화의 형태들"(Balsamo 29)을 형상화한다.

빌리가 티타늄으로 된 로봇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스파이크는 자신 또한 "여성"(female)적 존재라고 강조한다. 이는 스파이크가 오직 두 개의 젠더만이 허용되는 센트럴 파워에서 여성 존재가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 젠더가 "인간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남성 아니면 오직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성애중심적인 현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 젠더는 인간의 개념으로 흥미로울 게 없어요. 어쨌든, 인간 생명은 생물학에 있나요 아님 의식에 있나요? 만약 내가 당신의 팔, 다리, 귀, 코를 잘라내고, 두 눈을 빼고, 혀를 말아버린다면 아직 그걸 당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신은 자신을 의식에 위치시키는데 나 역시 의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 'Gender is a human concept . . . and not interesting.' . . .
> 'In any case,' 'is human life biology or consciousness? If I were to lop off your arms, your legs, your ears, your nose, put out your eyes, roll up your tongue, would you still be you? You locate yourself in consciousness, and I, too, am a conscious being,' (n. pag.)

스파이크는 우는 것도 배워야 하는 로봇에서 점차 시를 읽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센트럴 파워의 대중보다 더 "의식 있는 존재"로 진화한다. 특히 스파이크의 진화는 자신을 만들었던 센트럴 파워의 남성 과학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예고한다.

대중들이 문맹인 것과 대조적으로 스파이크는 글을 배우고 시를 음미하고 사유하기 시작한다. 스파이크는 우주탐사대의 핸섬 선장(Captain Handsome)에게 시 언어를 배운 이후 '인간다운' 감정을

가지게 된다. 스파이크는 선장의 구애를 거절하고 빌리에게 구애하는 가하면 머리만 남았을 때 다른 여성과 오럴섹스를 시도한다. 스파이크가 이를 "다양한 경험"으로 설명하는 것은 섹스, 젠더, 사적 규범 등의 주어진 틀이나 경계를 거부하고 확장하려는 것이다. 스파이크가 은폐되어 있는 "체제"(the system)를 "그들"(a "they")로 지명할 때, 기술을 이용해 대중의 몸과 의식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고 있는 체제 권력의 폭력을 인지하고 문제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을 '그들'에게 줘버렸어. 당신들은 그 체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에 체제에 맞설 수도 없지. 당신들은 다른 대안이라곤 없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어. 그 세계가 지금 죽어가는 중이고, 그 신세계는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지.
>
> 'Humans have given aways all their power to a "they". You aren't able to fight the system because without the system none of you can survive. You made a world without alternatives, and now it is dying, and your new world already belongs to "they".' (n. pag.)

스파이크와 빌리의 이종적 관계는 "체제의 이성애 규범에 대한 도전"(Weiss 182) 그 이상의 의미를 함의한다. 폐허 시티에서 빌리와 스파이크의 결합은 엄밀히 말해서 동성애를 넘어서는 인간과 기계가 혼재하는 이종적인 결합이자 포스트 휴먼적 존재들의 연대를 시사한다. 폐허 시티는 테크 시티가 부정하는 인종적인 몸, 레즈비언의 몸, 복제인간, 로봇과 같은 존재들을 위한 "타자성의 장소"(repositories of otherness)(Dolezal 102)이다. 비록 빌리는 유전자 전도 받기를 거부한 과학자이지만, 센트럴 파워의 시민들 모두가 태어날 때 이미 유전자가 개선되거나 혹은 복제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빌리 역시 "1세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과 기계

가 결합한 포스트 휴먼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윈터슨은 한 인터뷰에서 『석상』이 과학소설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관한 텍스트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시적일지라도 자신의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가능성의 공간"(a place of possibility)(Barnett 29)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스파이크가 빌리의 원조를 받아서 몸을 해체하는 지점에서 윈터슨이 언급한 가능성을 포착 할 수 있다. 2장의 말미에서 탐사대는 푸른행성에서 원래 서식하던 공룡들을 절멸시킬 계획을 세우지만 컴퓨터의 계산착오는 행성에 '빙하기'를 초래하고 과학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체를 제거하게 된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스파이크는 동력원인 태양열 전지가 급속히 소모되고 행성을 에워싸고 있는 유독한 먼지 탓에 충전이 어렵게 되자 빌리의 도움을 받아 몸을 해체시킨다. 스파이크의 몸 해체는 연인 빌리를 위한 것이기에 "가장 명백한 인간적인 제스쳐"(Dolezal 99)로, 개인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체제의 요구에서 탈피해 "주체적 모델로 변화하는 동성애적 사랑"(Weiss 185)으로 조명된다. 반면 스파이크가 빌리를 위해 에너지 소모가 큰 사지와 몸을 차례대로 분리시켜서 머리만 남기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스파이크가 제거해버린 몸 자체는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이자 남성 과학자들이 창조한 최고 업적물이기에 명백한 창조자 과학자들에 대한 도전이며 젠더가 각인된 몸에 대한 거부라 할 수 있다.

스파이크의 교체가능한 몸은 남성중심의 이성애 규범에 지나친 순응을 보여주는 맥머피 부인의 '고정된' 몸과 대비를 이룬다. 스파이크를 '원본 없는' 사이보그 존재로 볼 수 있다면, 스파이크의 교체가능한 몸은 젠더의 이분법적 개념에 도전적인 몸의 '대체가능성'을 시사한다. 스파이크의 사지절단은 '의도적'이기에 여성과 타자를 억압하는 기술사회로부터 '분리'이며 저항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파이크가 젠더화된 몸을 해체하는데 참여한 빌

리는 스파이크를 머리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한 머리"(a perfect head)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는 스파이크를 창조하면서 남성 과학자들이 이상향으로 삼았던 "완벽한 이브"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이다.

> "그녀는 몸이 없다 왜냐하면 몸이 필요 없을 것이기에. 그녀는 티타늄 판위에 완벽한 머리이다. 그녀는 예언자 같으며, 그녀는 단테에서 나온 것 같고, 그녀는 오즈이고. 그녀는 메두사이고, 그녀는 위니이고, 그녀는 신이다."

> "She has no body because she won't need one. She is a perfect head on titanium plate. She's like a prophet, she's like a thing out of Dante, she's Oz, she's Medusa, she's Winnie, she's God" (n. pag.)

스파이크와 빌리의 상호적 영향은 "기술적 제도와 전체주의적 제도를 넘어서 그들만의 진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Dolezal 101). 일찍이 스파이크와의 대화에서 빌리는 남성과 여성, 정신과 몸, 인간과 로봇간의 본질적이고 위계적인 경계들을 당연시했었다. 이제 빌리는 스파이크의 몸 해체를 '그녀가 갑옷을 벗어버린 것'(a piece of armour she has taken off)에 비유한다. 빌리의 각성은 젠더는 물론이고 섹스마저 본질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서 심지어 다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도너 해러웨이(Donna Haraway)를 위시한 사이보그 페미니스트들은 인간과 기술, 특히 여성과 기계의 하이브리드적 결합인 사이보그에서 전통적인 헤게모니인 남성지배적 권력 구조를 붕괴시킬 해방적 포스트휴먼의 형상화를 찾았다. 반면 윈터슨의 『석상』은 여성/로봇의 젠더가 각인된 몸을 통해 남성중심의 체제가 기술력을 이용해 여성 지배를 공고히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비행접시 대신

에 만들어낸 로켓이 "연료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고 민망스럽게 남근 같다(fuel-greedy, inefficient and embarrassingly phallic)"는 것은 명백히 과학기술의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표현한다. 그리고 스파이크가 체제의 최고업적물인 몸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현대 기술사회에서 여성의 저항 가능성을 시사하고 기술과의 제휴에서 여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라 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윈터슨의 『석상』은 여성 과학자의 목소리를 빌어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며, 남성중심의 체제가 기술을 전유한다면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텍스트이다. 『석상』은 기술적 진보의 시대가 열리더라도 기술을 장악한 체제에 의해서 여성의 몸이 자연적이고 성적인 것이고 문화적 기호들로 폭력적으로 재코드화 될 수 있음을 체현한다. 특히 『석상』에서 여성의 고정된 몸과 로보-사피엔스의 여성적인 몸은 첨단기술을 장악한 남성중심의 체제가 여성을 대상화되고 물화하는 방식에 대한 형상화로 볼 수 있다. 그로츠에 의하면 여성들의 몸은 여성으로서 억압과 경험과 입장을 발화하는 구심점이 되고 페미니즘적 저항의 장이 될 수 있다(2-4). 생물학적 몸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각인된 몸을 예속되거나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야 말로 몸이 저항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석상』은 우리가 몸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경계하고 몸을 저항의 장으로 사고해야 함을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우리가 기술적 성취나 풍요로움에 도취된다면 오늘날 기술과학이 만들어내는 모순들과 사회

적, 도덕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들을 직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42). 빌리와 로보-사피엔스가 연대하여 젠더화된 몸을 해체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체제가 구성한 규범적인 몸에 대한 도전이자 저항과 다르지 않다. 특히 『석상』에서 여성/여성로봇의 연대는 레즈비어니즘을 넘어서는 것으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욕망하고 자신만의 각인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몸을 상상하도록 하며 기술사회에 여성과 기계, 포스트휴먼적 존재들의 연대 가능성을 제안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Winterson, Jeanette. "Science in Fiction: Interview with Novelist Jeanette Winterson." *New Scientist 195. 2618* (2007): 50–51.

_____. *The Stone Gods*. 2009. Mariner, Kindle Edition. 2018.

2. 논문 및 단행본

발사모, 앤 마리. 『젠더화된 몸의 기술』. 김경례 옮김. 홍천: 아르케, 2012.

Antakyal ı oğlu, Zekiye. "Jeanette Winterson's *The Stone Gods:* A Post modern Warning." *Gaziantep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Dergisi 11.3* (2012): 975–83. Web. Nov. 2, 2018

Barnett, David. "Science Fiction: The Genre that Dare not Speak its Name." *The Guardian 28* (2009). Web. Nov. 12, 2018.

Bordo, Susan.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4.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2013.

Dolezal, Luna. "The Body, Gender, and Biotechnology in Jeanette Winterson's *The Stone Gods.*" Literature and Medicine 33.1 (2015): 91–112.

Dworkin, Andrea. Woman Hating. New York: Dutton, 1974.
Grosz, Elizabeth.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Indiana UP, 1994.
Onega, Susana. "The Trauma Paradigm and the Ethics of Affect in Jeanette Winterson's *The Stone Gods*." *Ethics and Trauma in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Brill Rodopi, 2011: 265–98.
Villegas-López, Sonia. "Body Technologies: Posthuman Figurations in Larissa Lai's Salt Fish Girl and Jeanette Winterson's *The Stone Gods*."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56.1* (2015): 26–41.
Weiss, Michaela. "Jeanette Winterson's *Stone Gods* as Trans-world and Trans-gender Dystopia." *The Asian Conference on Cultural Studies 2013*. Web. June 6, 2018.

(투고일: 2020. 5. 9 심사완료일: 2020. 6. 22 게재확정일: 2020. 6. 23)

강영아
소 속: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115번길 10 (옥동)동덕현대아파트 102동 801호
전자우편: pkya2006@hanmail.net

[Abstract]

Criticism on Gendered Body of Robo-sapiens in Jeanette Winterson's *The Stone Gods*

Kang, Yeong-a

This study analyzes Jeanette Winterson's *The Stone Gods,* which not only warns of the oppression of women within the tech-centered society, but also represents the possibility of woman's resistance to it. The text depicts women seemingly liberated from reproductive duty, domestic drudgery, and gender inequalities through high-tech advancements, but with women's fixed bodies it reveals that if the patriarchal society monopolizes the technology, women and their bodies will be oppressed, although not through the technology itself.

I focus on Mrs. McMurphy's desire for a 'fixed' body through the 'genetical reversal' to seduce her pedophile husband, and a female-formed Robo-sapiens, Spike, whose 'exchangeable' vagina's purpose is to play the roles of sexual slave, as well as that of a specialized worker for male scientists. Their gendered bodies reveal how the Central Power regime uses scientific knowledge, including the media, as an ideological method to govern and exploit women's bodies. Moreover, Spike's dismembering of her own body for the sake of her lover, Billy, represents the possibility of woman and cyborg solidarity, resistance, and criticism on the gendered bodies constructed by the tech-centered patriarchal society.

Key words: Jeanette Winterson, *The Stone Gods,* fixed bodies, tech-body, Robo-sapiens, gendered body